

고구려와 중국의 武冠 비교 연구

이 경 희* · 서 영 대* · 조 우 현**

인하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Mu-Gwan(武冠) of Koguryo and China

Kyung-Hee Yi⁺ · Young-Dae Suh^{*} · Woo-Hyun Cho^{**}

Ph. D Course, Dept. of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Prof., Dept. of History, Inha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6. 12. 7. 접수 ; 2007. 1. 15. 채택)

Abstract

Mu-Gwan(武冠) is a headgear of northern nomadic people's costume, Ho-Bok(胡服). It became a part of Chinese(中原) Costume through the adoption of Ho-Bok(胡服) by King Muryong(武寧王) of Kingdom of Cho(趙). Chinese(中原人) did not use it as the formal costume of high class but the Costume military or low-level classes because Chinese(中原人) regard it as a practical costume only for low-level classes. In this process, Mu-Gwan(武冠) and its clothes had got changed. It became high in shape by an influence Hsien-pi(鮮卑族)'s headgear and became generous in its going with clothes for Chinese(中原) Costume.

It needs to attend that Mu-Gwan(武冠) could be found in Koguryo(高句麗)'s mural paintings. Mu-Gwan(武冠) of Koguryo(高句麗) had kept the same pattern from middle of 4C to late of 5C. Actually Koguryo(高句麗)'s Mu-Gwan(武冠) was similar with Han(漢) dynasty's, but It was quite different from Qin(晉) or Wei(北魏) dynasty's which belong to same period with Koguryo(高句麗)'s.

It is possible to guess that Koguryo(高句麗) advanced Mu-Gwan(武冠) as their own. Koguryo(高句麗) could be aware of 'Changed Mu-Gwan(武冠)'. Because there are frequent diplomatic event between Koguryo(高句麗) and Chinese Dynasties, Barbarian Dynasties. Moreover the guess have persuasion by the existence of 'Changed Mu-Gwan(武冠)' in Jee-an(集安) district's mural painting as a Costume of holy person.

In brief, It could be noticed that Koguryo(高句麗)'s Mu-Gwan(武冠) is distinguished from Chinese and Barbarian dynasties' and Koguryo(高句麗) advanced Mu-Gwan(武冠) in their own style.

Key Words: Koguryo(高句麗), Mu-guan(武冠), Ho-bok(胡服), Chian(중국)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Yi

Tel. 82-11-9046-9579 Fax. 82-2-760-8848

E-mail : vividream_r@naver.com

I. 서론

복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관모의 존재는 문명화의 척도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중원의 복식 문화에서는 관모를 쓰지 않은 머리, 즉 피발을 미개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며, 공자가 “管仲이 아니었다면 나는 左衽에 被髮을 하고 있었을 것”¹⁾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의 장식이라는 관모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하여 고대 복식에서 관모는 복식 일습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漢代의 복제에서 관모의 명칭으로 복식 전체가 지칭되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따라서 관모의 유사성은 복식, 나아가 복식 문화의 유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문헌사료의 부족을 메우는 사료의 보고이다. 특히 생활풍속도는 고구려의 복식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고대 복식 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된다. 벽화에는 여러 종류의 관모가 등장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을 중국사서에서 고구려의 관모로 언급된 折風이나 幘, 羅冠, 蘇骨 등과 연결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折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幘이나 羅冠의 실체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는 무덤의 피장자 논쟁³⁾과 맞물려 고구려왕의 ‘白羅로 만든 관’⁴⁾로 비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로 평양·안악지역 벽화의 묘주급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관모를 쓰고 있어 주목이 요구된다. 이는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의 형태를 계승한 것으로, ‘白羅로 만든 관’인가 武冠인가 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피장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악3호분을 왕릉으로 보는 연구자들⁵⁾의 경우 대부분 ‘白羅로 만든 冠’으로 이해하는 반면, 묘주를 前燕의 망명객인 冬壽라고 보는 이들은⁶⁾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를 武冠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악3호분 묘주를 고구려의 왕으로, 관모는 武

冠으로 보는 견해⁷⁾도 있어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석구는 “以白羅為冠”이라는 기사가 실린 『舊唐書』, 『新唐書』의 내용연대는 7세기 이후로 4세기 중반인 안악3호분과는 시차가 크기 때문에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를 이해함에 있어 『舊唐書』, 『新唐書』의 기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白羅로 만든 관’이라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⁸⁾ 한편 박선희는 冠을 만든 紗의 성근 정도, 끈의 길이, 착용 모습의 차이, 武官만이 武冠을 쓰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어 武冠이라는 견해를 반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는 섬세한 ‘白羅로 만든 冠’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⁹⁾ 정완진은 관등에 따라 복식에 구별이 있었던 고구려에서 왕만이 썼던 白羅로 만든 冠이 중국의 1품부터 9품까지 통용되던 武冠과 같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¹⁰⁾

논란이 정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와 무관의 형태적 유사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武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평양지역 벽화에 보이는 묘주급 인물의 관모 역시 武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¹¹⁾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평양지역 벽화에서 武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인물의 복식으로 등장하는 고구려의 武冠은 등장하는 빈도나 유지되는 시기를 고려할 때 고구려 복식에서 접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무관의 검토는 평양지역 복식뿐 아니라 고구려 복식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고구려 무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의 武冠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 무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¹²⁾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중국의 武冠을 검토하려고 한다. 무관에 대한 문헌적·고고학적 고찰을 통해 武冠은 어떤 관모이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고구려 벽화의 무관은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중국의 무관과 비교해보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구려 복식을 이

해하는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 고구려 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기는 고구려의 생활풍속계 벽화가 소멸되는 시점인 5세기 후반, 6세기 초를 하한으로 삼을 것이다. 武冠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국 문헌에 의한 것일 정도로 중국 측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고구려 복식에 관한 사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武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라도 고구려 복식의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武冠의 문헌적·고고학적 검토

1. 漢代 이전의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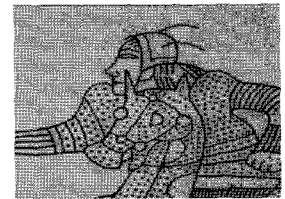
王國維는 『胡服考』에서 “호복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趙 武寧王때가 처음이다. … 무령왕 19년 처음 호복을 채용하였는데 그 冠은 惠文이며 武官이 썼다”¹³⁾라고 하여 武冠의 유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즉 武冠은 戰國時代に 趙 武寧王의 胡服채용¹⁴⁾과 함께 중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¹⁵⁾ 武冠(籠冠)은 호복에서 온 것이 아니라 漢代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중원 고유의 관모이며 중원에서 먼저 유행하였고 남북조 시대가 되어 중요한 관모의 하나가 된 것이라는 견해¹⁶⁾도 있다. 그러나 武冠은 호복의 관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관해서는 이후의 검토과정에서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다. 『胡服考』에서는 호복의 冠을 惠文冠¹⁷⁾이라 하고 있어 이것을 무관에 관한 기사로 볼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후 史書의 輿服志에서 惠文이 武冠의 異稱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惠文관은 무관과 같은 관모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惠文冠, 즉 武冠의 초기형태에는 黃金附蟬이나 貂鼠尾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後漢書』에 “무관은…趙惠文冠이라 부른다”이라 하고 그 注에서 “또 駿驥冠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였다. 또 “무관에는…좌우에 鷓尾를 쌍으로 꽂으므로 鷓冠이라 부른다.”¹⁸⁾고 한 것을 보면

鳥尾를 꽂아 장식한 무관은 특별히 鷓冠 혹은 鷓冠이라 부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주석보는 처음에는 무관에 새 깃을 꽂았다가 나중에는 貂尾를 꽂아 장식하면서 貂蟬籠冠이 된 것이라 하였다¹⁹⁾. 原田叔人は 冠에 鳥羽를 꽂는 것은 북아시아 민족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풍습이라 하였는데²⁰⁾, 이는 武冠이 호복의 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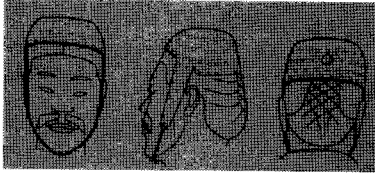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武冠에 새 깃을 꽂아 장식했다는 내용, 즉 鷓冠의 존재에 대해서는 『後漢書』 외에도 『宋書』²¹⁾, 『南齊書』²²⁾, 『隋書』²³⁾ 등의 문헌에 계속 나오지만 실제 고고학 자료에서 鷓冠으로 보이는 관모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림1>은 전국시대로 추정되는 낙양 金村 출토의 刺虎鏡 騎士로 머리에 밀착되는 관모를 쓰고 새 깃 장식을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鷓冠(혹은 鷓冠)은 무관에 조우를 꽂아 장식한 것이므로 자호경 기사의 鷓冠은 전국시대의 무관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1> 전국시대 鷓冠
(沈從文(2005). 中國古代服飾研究, 도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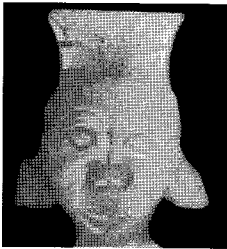
해문관의 형태에 대해 주석보는 『戰國策』 齊 6 田單將攻狄의 “大冠은 키(箕)와 같다”²⁴⁾는 기사를 들어²⁵⁾ 弃形의 관모 위에 키(箕)모양의 관모를 덧쓴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정하였다²⁶⁾. 김소현은 이 기사와 자호경 騎士의 관모를 연결해 자호경 騎士의 관모형태가 箕(삼태기)모양과 비슷하니 무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형태가 箕와 같다는 기록을 삼태기 같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키를 뒤집어 쓴 모양인 망상의 큰 관을 말하는 것²⁸⁾으로 볼 수도 있어 자호경 기사의 관모를 무관의 초기 형태로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호경 기사의 관모는 머리에 쓰는 부분과 얼굴 옆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구조로 출토된 무관의 실물과 공통점이 있다. 한편 <그림2>는 진시왕릉 병마용의 머리모양으로 刺虎鏡 騎士와 같은



<그림2> 진시황릉 병용 두식
(沈從文(2005). 中國古代服飾研究, 삽도 31)

형태의 관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병마용의 頭飾에는 새의 깃 장식 없이 혜문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모의 형태가 출토 무관과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武冠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林巳奈夫는 조 무령왕의 호복채용이 冠飾을 채용한 것일 뿐 冠자체를 채용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바구니(籠)모양인 무관이 스키타이모라고 하는 皮弁形관모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들어 무관이 호복에서 왔다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西周 옥인상의 관(<그림 3>)이 漢代 이후에 나오는 무관과 형태가 비슷하므로 그것이 무관의 초기 형태일 수도 있으며 網狀의 큰 관인 무관은 호복에서 온 것이 아니라 中원에서 시작된 관모일 것이라고 보았



<그림3> 西周 玉人像의 冠帽
(대영박물관 홈페이지, 林巳奈夫
(1976). 漢代の文物, 圖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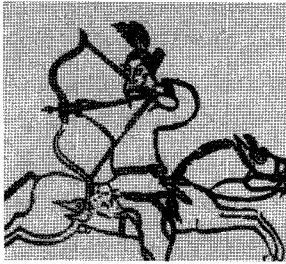
다.²⁹⁾ 그러나 西周와 殷의 玉人像, 石人像은 그 복식이 전형적인 中원 복식과는 거리가 있어 中원의 복식분화를 표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冠에 조우삽식을 하는 것이 북방계 문화의 주요한 특징임을 감안한다면 조우를 뜻하는 할관, 즉 무관은 북방계 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林巳奈夫가 예로 든 西周의 후대의 무관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方形大冠이 무관의 초기 형태로 보이는 할관과 다른 것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술한 이유로 할관을 무관의 초기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지며, 때문에 자호경 騎士의 할관을 무관의 초기 형태로 이해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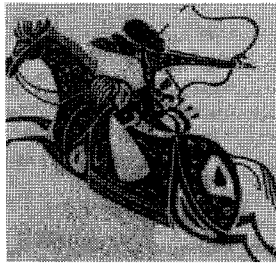
2. 漢代의 武冠

『漢書』 武五子傳에 “昌邑王이 短衣에 大袴를 입고 惠文冠을 썼다”는 기사³⁰⁾가 있어 호복의 관모인 무관에는 袴褶³¹⁾을 함께 입었음을 알 수 있다. 昌邑王은 前漢 武帝의 뒤를 이은 昭帝가 죽자 광광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사람으로, 그 행실이 좋지 못하고 자질이 없음을 이유로 폐위되었다. 실제로 昌邑王이 惠文冠을 썼다는 武五子傳의 기사 뒷부분에는 그의 옷차림이나 언어가 바르지 못하다는 내용³²⁾이 나온다. 前漢代만 해도 호복인 고슴에 혜문관은 일반적이지 않은, 혹은 천시하는 오랑캐의 옷이었을 것이며 때문에 고슴에 惠文冠을 쓴 昌邑王의 차림은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흉노에게 잡혀 투항한 李陵이 漢으로 귀국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자조적으로 “나는 이미 오랑캐 옷을 입었다”³³⁾라 말한 것과도 상통하는 내용으로 당시 호복에 대한 中원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즉 무관은 호복과 함께 中원에 수용되기는 하였으나 천시 받는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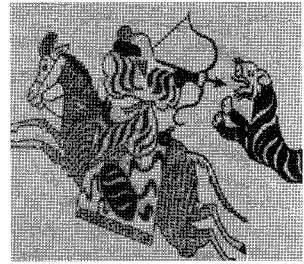
그러나 『後漢書』 光武帝紀에 “光武帝(帝)는 絳衣에 大冠을 썼다”라 하고 그 주에 『東觀漢記』를 인용하여 “이전부터 絳衣와 大冠은 장군복이다”³⁴⁾이라 한 것을 보면 후한 이전에 이미 武官복식으로 絳衣와 武冠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한대가 되면서 법적인 관복제도가 만들



<그림4>낙양출토 공심전 활관 (沈從文 (2005). 中國古代服飾研究, 도판 75)



<그림5> 漢代 호문단의 (沈從文(2005). 中國古代服飾研究, 삼도 48)



<그림6> 漢代 호문단의 (沈從文 (2005). 中國古代服飾研究, 삼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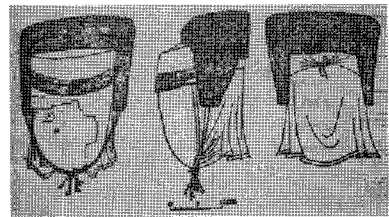
어지는데 明帝의 永平 2년 복제제정에 의한 것이다. 『後漢書』 여복지에 武冠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後漢代가 되면서 武冠이 武官의 복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後漢書』 여복지의 내용에 따르면 武冠은 武弁, 大冠³⁵⁾, 繁冠으로 불렸으며 무관들이 썼다.³⁶⁾ 侍中·中常侍의 武冠에는 특별히 黃金璫을 더하고, 蟬이나 貂尾를 붙여 장식을 삼았으며 趙惠文冠 혹은 준의관이라 불렸다.³⁷⁾ 흉노가 내속해 왔을 때 이들 중상시의 혜문관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³⁸⁾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郎將, 羽林左右監이 썼고 이들은 활관과 함께 紗縠單衣나 虎文單衣와 虎文袴를 입었다.³⁹⁾ 활관에 호문단의나 호문고를 입은 모습은 화상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4>는 낙양에서 출토된 空心傳에 그려진 인물상으로 새 깃을 꽂은 활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이 입은 복식은 상하가 분리된 고슴으로 보이며 활관, 즉 무관이 고슴과 함께 착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는 낙양에서 출토된 靑銅製 筒形具에 있는 그림이고, [그림 6]은 河北省에서 출토된 금은상감 원통형 金具의 수렵문에 나오는 기사이다. 조우삼식은 없으나 武冠으로 보이는 관을 쓰고 있으며 옷에는 무늬가 선명해 여복지의 ‘虎文單衣, 虎文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림5>의 복식은 착수 좌임의 고슴으로 보이거나 <그림6>의 경우는 袍로 볼 수 있어 무관 복식으로 고슴과 함께 袍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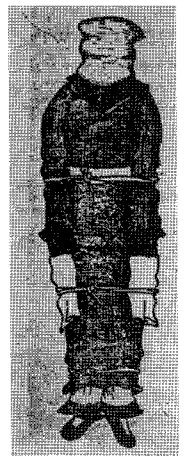
『後漢書』 여복지에서는 『晉公卿禮秩』를 인용해 “武冠과 冪上幘을 썼다” 라고 한 것을 보면

武冠에 冪上幘을 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중 착장방법은 화상석에서 착장모습을 볼 수 있으며, 武威 磨咀子墓의 출토품(<그림7>)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한 말이나 왕망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武威 磨咀子的 62호 묘에서는



<그림7> 무위 마저자 묘의 무관출토품 복원도 (武威磨咀子三座墓發掘簡報)

무관 실물이 출토되었는데, 武冠 안에 巾幘이 있었다고 한다. 복식으로는 紅絹禪衫에, 蛟龍(蛟)모양의 銅帶鉤가 있는 帶를 띠고, 안에는 絲錦 襦를 입었으며 발에는 韋履를 신었다고 한다.⁴⁰⁾ 帶鉤가 있는 帶나 韋履는 胡服의 주된 구성 요소로 전체적인 복식이 호복 일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襦에 衫을 덧입었다는 보고서의 설명으로는 복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함께 발굴된 여자 시신의 모사도⁴¹⁾(<그림8>)로 미루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여자시신은 고슴에 포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남자의 복식



<그림8> 마저자 묘 여자 시신 모사도 (武威磨咀子三座墓發掘簡報)



<그림9> 後漢代 幘과 武冠
(중국화상석전집 도판191)



<그림10> 後漢代 머리띠와 武冠
(중국화상석전집 도판215)



<그림11> 上林園虎園鬪獸圖의 武冠 복식
(세계의 대미술관, p.21)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⁴²⁾ 무관을 쓴 사람도 고슴에 포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관에 고슴, 포를 입은 모습은 화상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림9>와 <그림10>은 모두 後漢 후반으로 편년되는 山東 沂南縣 漢墓의 화상석이다.⁴³⁾ <그림9>의 경우 幘 위에 무관을 쓰고 있어 磨咀子墓 무관의 착장 모습을 보여준다. 幘은 원래 冠을 쓰지 못하는 賤人의 쓰개로 漢 元帝가 머리술이 많아 그것을 수습하려고 쓰기 시작하였으며 王莽대에 이르러 王莽이 대머리라 그것을 가리려고 屋을 가하였다고 한다.⁴⁴⁾ 즉 책은 머리에 두르는 띠 형태였다가 屋을 가하면서 帽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10>에서는 幘이 아닌 머리띠 위에 무관을 착용하고 있다. 幘이 원래 머리띠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幘의 형태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머리띠를 內冠으로 쓴 것을 보면 무관에 幘과 머리띠 형태의 쓰개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武官으로 보이며 이들 역시 다리부분에 바지가 보이는 것을

보아 袴褶에 袍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11>은 낙양에서 출토된 기와에 그려진 그림으로 상림원이라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싸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⁴⁵⁾. 역시 후한대의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에서도 武冠에 袍,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지통은 화상석의 武官에 비해 그리 넓지 않으나 앞이 들린 신발을 신고 있다.

武冠의 착용자로 고취악대가 언급되는 것은 『宋書』가 처음이지만,⁴⁶⁾ 漢代 화상석이나 漢代 묘실벽화에서 이미 악대가 무관을 쓴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12>는 기남 화상석에 나오는 악대로 북을 치는 사람이나 앉아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관을 쓰고 있다. <그림13>의 안평 녹가장 묘의 벽화⁴⁷⁾에서도 기남화상석의 악대와 비슷한 구도로 무관을 쓰고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후한 후기로 편년되며 앞서 살펴본 武官들과 마찬가지로 포에 고슴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남 화상석의 연주장면을 보면 무관을 쓴 악



<그림12> 기남화상석 악대의 武冠 (중국화상석전집 도판 203)



<그림13> 녹가장묘 악대의 武冠 (安平東漢壁畫墓, 도판 49)

대뿐 아니라 통천관, 진현관을 쓴 악대가 앞뒤로 있어 무관만이 악대의 관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近臣들의 복식이었던 무관 복식은 漢代가 되면서 武官들에게 폭넓게 활용되었다. 착용방식에도 변화가 있어 무관 안에 幘을 받쳐 썼으며, 복식으로 袴褶과 袍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晋代의 무관

중원 왕조의 계보는 漢의 멸망 이후 삼국시대를 거쳐 晋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북방민족들의 활동이 왕성해 여러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북위에 의해 북부지역이 통일되고 중원왕조는 남부에 자리 잡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이른바 남북조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시기의 복식은 漢의 服制를 계승해 기초로 삼았으나 북방민족과의 계속되는 교류로 胡漢문화 간의 융화가 심화되었고 복식 문화에도 반영되었다. 晋代에도 여전히 武冠은 여러 장군과 무관들의 복식이었으며⁴⁸⁾ 시중이나 중상시의 무관에 金璫이나 매미장식을 붙여 장식을 삼거나 貂尾를 꽂는 것도 그대로 이어



<그림14> 낙신부도
무관(中國의美術Ⅱ, 도판 2)

졌다⁴⁹⁾. 또한 평원왕, 낙안왕 등을 불러 산기상시의 관을 주었는데⁵⁰⁾ 漢代에 흉노 선우에게 무관을 사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天子의 元服으로 武冠이 쓰이기도 하였다⁵¹⁾.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籠冠이라는 이름이 더해졌다⁵²⁾. 籠冠이라는 이름은 앞서 언급했듯이 『戰國策』의 “大冠若箕”이라는 기사와 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籠冠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을 보면 그 모양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실제로 東晋 顧愷之의 『洛神賦圖』⁵³⁾(<그림14>)나



<그림15> 「女史箴圖」의 武冠
(대영박물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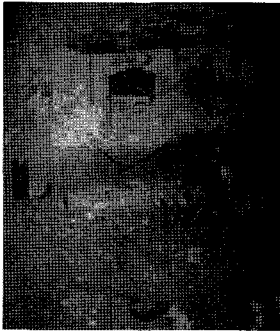
『女史箴圖』⁵⁴⁾(<그림15>)에 나오는 무관을 보면 漢代의 무관에 비해 더 높아지고 얼굴 옆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籠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형태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북위 이후 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무관의 위가 높아지고 뒷부분이 길어진 것은 이른바 선비모의 영향이 아닌가 하며⁵⁵⁾, 이것은 前燕, 北魏 등의 융성에 의해 선비계 문화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호북에 기원을 둔 무관은 戰國時代, 秦代에는 머리에 밀착되는 형태였지만, 漢代를 거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크기가 커지고 晋代 이후에는 귀와 옆얼굴을 덮는 형태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洛神賦圖』와 『女史箴圖』의 무관 착용자는 신분이 다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관을 쓰고 있어, 이 시기에는 무관이 두루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洛神賦圖』의 무관 착용태를 보면 무관이 책의 앞부분까지 덮어 아예 무관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인다. 漢代 무관이 幘을 쓰고 머리 뒷부분에 걸치듯 외관으로 쓰는 형태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복식은 목둘레가 넓은 심의형 袍에 앞이 들린 신발을 신고 있어 전형적인 중원의 복식으로 볼 수 있다. 『晋書』에는 武官이외에 특별히 무관 착용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武官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漢代에는 고슴에 포를 입고 무관을 쓴 武官이 대부분이었던 반

해 晋代에 와서 武官의 복식을 하지 않고 武冠을 쓴 사례가 있는 것으로 武冠의 쓰임이 더 많아졌다는 추측을 할 뿐이다.

한편 「女史箴圖」의 무관 착용자들은 幘이 없이 맨머리에 武冠을 쓰고 있는데, 머리 중간부터 뒷부분에 걸쳐 쓴 것은 漢代의 착용법과 같다. 복식은 漢代 武官과 마찬가지로 고슴에 짧은 포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마꾼들 대부분은 바지를 입지 않아 袍만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원왕조인 晋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서도 무관을 볼 수 있는데, 袁台子墓의 묘주의 복식(<그림16>⁵⁶⁾이 대표적이다. 원대자묘에는



<그림16> 袁台子墓 묘주상 (2000년 전 우라이웃, 도판 8)

목서가 있으나 剝落이 심해 절대연대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축조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⁵⁷⁾가 있지만 4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⁵⁸⁾. 원대자묘는 그 부장품이나 해당시기 세력권을 보아 선비계 고위층의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묘주가 武冠으로 보이는 관을 쓰고 袍를 입고 있다. 묘주의 관은 검은 內冠위에 흰 덧관을 쓴 형태인데, 책을 쓰고 머리 중간부터 무관을 걸쳐 쓰는 漢代무관의 착장 형태와 비슷하다. 원대자묘의 벽화, 특히 묘주의 초상은 안악3호분의 그것과 유사하다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다.⁵⁹⁾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는 측면상이 있는데 착장형태가 漢代 무관의 형태와 유사하다. 안악3호분 묘주의 관과 원대자묘 묘주의 관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대자묘 묘주의 관이 무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甘肅省의 魏晋시기묘 벽돌 그림에서도 武冠을 발견할 수 있으며(<그림16>⁶⁰⁾ 착장형태는 원대자묘나 안악3호분과 유사하다. 甘肅省지역은 秦代 에는 大月氏, 烏孫人 등이 거주했었고,

前漢 文帝때는 흉노가 月氏를 몰아내고 차지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후한 武帝때는 이곳에 酒泉郡, 武威郡을 설치했으며 晋代에 들어와서는 前涼, 西涼, 北涼의 세력권이기도 했다⁶¹⁾. 따라서 이 지역은 온전한 중원의 문화권이기보다는



<그림17> 감숙성 주천 무관(甘肅省酒泉西洵魏晋墓彩繪碑, p.6)

이른바 胡漢의 문화가 융합된, 북방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문화를 가진 지역일 것으로 보인다. 무관의 착용모습은 원대자묘와 마찬가지로 漢代의 착장법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함께 입은 포나 무관의 착장모습이 원대자묘나 안악3호분과의 유사성을 생각하게 한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晋의 무관과 원대자묘, 감숙성의 武冠이 다르다는 것이다. 晋의 경우 幘이 무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거나 幘을 쓰지 않았지만 원대자묘나 주천벽화의 경우 책을 쓰고 머리 뒷부분에 무관을 걸쳐 쓰는 착장 형태를 보여주었다. 원대자묘나 감숙성의 벽화의 무관은 晋보다는 오히려 고구려의 무관과 유사성을 보인다. 원대자묘, 감숙성 지역 벽화와 고구려 벽화 사이의 공통된 요소는 武冠 외에도 여럿 발견할 수 있어 이들 간의 문화적인 상관관계에 주목이 요구된다.

4. 宋·齊·北魏의 무관

宋代에는 1품~9품까지 武官들의 복식으로 쓰여 그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혜문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명칭과 관계없이 侍中, 散騎常侍, 中常侍의 무관에 貂蟬을 가하는 것은 이어졌다⁶²⁾. 鷓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鷓冠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虎賁中郎將, 羽林監의 조복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³⁾. 이 외에도 천자의 雜服,⁶⁴⁾ 給事

<표1> 무관이 보이는 고구려 고분 일람⁷⁴⁾

고분명	구분	연년	소재지	벽화내용	武冠+袍	비고
안악3호분		357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독좌상	O	악대가 무관 착용
				행렬		
평양역전고분		4C중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	행렬 일부(?)	O	
태성리1호분		4C말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독좌상	O	
덕흥리고분		408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	政事보는 장면	O	
				실내 생활		
약수리고분		5C초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	부부 좌상	O	
				행렬		
감신총		5C전	남포시 와우도구역 신령리	독좌상	O	폐슬로 보이는 장식
팔청리고분		5C전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	조희(?)	O	
				행렬		
쌍영총		5C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부부 좌상	O	폐슬로 보이는 장식
수산리고분		5C후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	부부 나들이	O	폐슬로 보이는 장식
오회분4호분		6C전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 우산촌	仙人	O	

미나⁶⁵⁾ 黃門鼓吹⁶⁶⁾의 복식으로 광범한 계층에 두루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齊書』의 기록은 다소 소략한 느낌인데 軍校武職, 黃門, 散騎, 太子中庶子, 二率, 朝散, 都尉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⁶⁷⁾ 이 시기에도 여전히 侍臣의 관에는 貂蟬을 가하였으며,⁶⁸⁾ 武騎虎賁은 “服文衣, 插雉尾”라 한 것⁶⁹⁾으로 보면 활관에 호문단의를 입었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魏의 복식은 중원왕조인 漢, 晉의 복식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북방계 복식인 袴褶이 朝服·祭服 등으로 착용되고 있어 생활에서의 착용과는 별도로 제도만은 중원왕조의 복제를 따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⁷⁰⁾ 武弁으로 불린 北魏의 武冠은 主兵官이나 侍臣이 착용하였고 특별히 侍臣의 무변에는 貂蟬을 가하였다⁷¹⁾. 羽林, 武賁은 마찬가지로 鷩冠을 썼다⁷²⁾. 侍臣의 무변에 별도의 장식을 하는 것은 혜문관으로 시작되었던 무관의 역사 내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 齊에서는 보이지 않던 鷩冠이라는 명칭

이 북위 복식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위가 북방계 복식문화를 가진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에 남조보다는 조우삼식 풍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우삼식관이 漢代의 일부 사례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북위무덤으로 추정되는 寧懋石室墓(<그림18>)에서 보이고 있어 명칭에서 보이는 특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위의 경우 천자도 무관을 즐겨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 역시 무관과 북위의 문화적 親緣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자는 季秋講武나 出征告廟때는 黃金附蟬, 左貂⁷³⁾한 무변을 썼으며, 橋類官社할 때는 무변에 硃衣를 입었고, 入溫, 涼室할 때는 右貂附蟬한 무변에 絳紗服



<그림18> 북위 영무석실묘 武冠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 p.157)

을 입었다. 또한 賞祖罰社 때는 左貂附蟬의 무관을 썼다. 남조에서 천자의 무관은 元服, 雜服에 불과하였으나 북위에서는 상황별로 착용법이 다를 정도로 애용되었던 것은 역시 북방계 문화를 가진 북위와 무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무관의 유래에 관한 논란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무관은 호북의 관모로 문화적 계통은 중원복식이 아니라 북방계이며, 북위와 무관의 親緣性, 중원왕조의 무관 천시 등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관이 호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영무석실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소매

나 바지의 폭은 넓어졌으며 신발은 앞이 들린 신발을 신고 있어 胡漢문화의 융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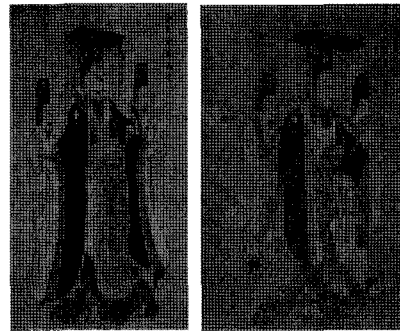
북위에서는 武官뿐 아니라 시종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착용한 예가 많이 보인다. 그 복장은 주로 고슴에 포를 입은 모습이다. <그림19>75)는 河北 景縣에서 출토된 陶俑인데 위가 높고 옆으로 볼록해진 무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슴에 포를 입고



<그림19> 河北 景縣 출토 도옹(中國大百科全書智慧藏)

있는데 바지통은 넓어진 것은 앞서 말한 문화 융합의 결과로 보인다. <그림20>은 唐代의 화가 염립본이 그린 「13제왕도」76)의 부분이다. 각 왕의 侍臣들이 武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염립본은 唐代의 사람임에도 이들의 무관착용법과 복식은 東晉代의 「洛神賦圖」의 그것과 비슷하다. 아마도 중원왕조의 무관착용 모습은 대부분 <그림20>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한다.

요컨대 宋, 齊, 北魏의 무관은 漢, 晉代의 제도를 계승하였지만, 남북조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원왕조인 남조는 武冠을 武官의 복식으로 사용했으나 천자의 경우 원복, 갑복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북위의 경우는 중원 왕조의



<그림20> 閻立本 「13제왕도」의 武冠 (보스턴박물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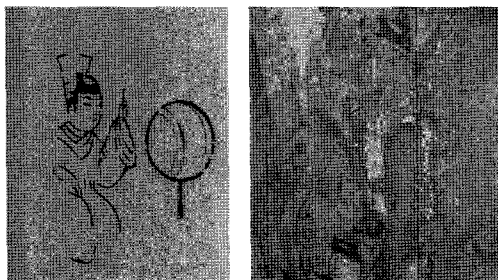
服制를 철저히 따르려 했고, 이례적인 漢化策까지 썼지만 생활에서는 武冠을 광범하게 착용하였다. 이것은 무관과 북방 이민족 계통의 북위가 문화적 계통성이 동일함을 말해준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은 武冠이 북방계 복식인 호북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III. 고구려의 무관

고구려 벽화의 무관은 평양지역 벽화에 주로 나타나며, 집안지역에서는 오회분 4호분에서 仙人의 복식으로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양지역 고분벽화 묘주의 상당수가 武冠을 착용하고 있으며 시기도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후반에 걸쳐있어 주목이 요구된다. 평양지역 벽화에서는 묘주급인물이 거의 독점적으로 착용하며, 벽화내용에서 정면과 측면을 두루 보여 주고 있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무관이 확인되는 고구려 고분 일람표이다.

초기, 중기 고분인 태성리1호분, 평양역전 고분, 안악3호분, 덕흥리 고분, 팔청리 고분, 약수리 고분에서 부터 무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시기적으로 東晉代(317-4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는 무관은 대부분 묘주급 인물만이 착용하는데 평양역전고분(<그림21>)과 안악3호분(<그림22>)의 경우에는 漢代 화상석에 보이는 것처럼 악대가 무관을 쓰고 있



<그림21> 평양역전고분 약대 武冠 (조선유적유물도감 도판 272) <그림22> 안악3호분 약대 武冠 (평양일대고구려유적 도판 63)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부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초기 고분이 後漢의 문화와 어떤 연결을 갖는지 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77)

안악3호분과 태성리 고분의 무관은 묘주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데 초상의 구도가 비슷하다. 안악3호분부터 덕흥리 고분까지의 묘주 정면 초상은 구도나 배경 등이 유사하며 원대자묘 등의 요동지역 벽화묘와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이들 묘주상이 정형화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78) 안악3호분과 태성리, 덕흥리 고분 묘주의 복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武冠은 內冠에 무관을 덧쓴 형태로 보인다<그림 23><그림24><그림25>79).

덕흥리 고분 이후에는 묘주상의 규모가 작아 지거나 夫婦並坐像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는다. 묘주상의 변화는 평양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강화가 관철되면서 지방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80).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정치적 관계뿐 아니라 내세관 등의 관념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념적 변화에도 무관 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무관이 고구려 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복식사적 관점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약수리 고분에서는 부부 좌상(<그림26>)과 행렬도(<그림27>)에서 무관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좌상에 보이는 묘주의 관은 다른 고분의



<그림23> 안악3호분 묘주 (평양일대고구려유적 도판 22)



<그림24> 태성리 1호분 묘주 (조선유적유물도감 도판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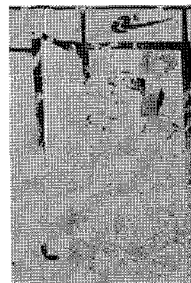
<그림25> 덕흥리고분 묘주 (고구려고분벽화 도판106)



<그림26> 약수리 고분 부부상 (조선유적유물도감 도판 19)



<그림27> 약수리 고분 행렬도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41)



<그림28> 팔청리 고분 (조선유적유물도감 도판 59)

무관 정면상과 차이가 있어 무관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데, 발굴보고서에서 “남자는 검은 빛의 黑幘에 덧관을 쓰고 맞섬(合襟)으로 된 황색 袍를 입었다”⁸¹⁾라고 한 것을 보면 무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행렬도에서는 武冠을 쓰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며 이는 안악3호분 행렬도의 묘주 측면상과 유사하다.

팔청리 고분에서는 “고대 광실 한 채를 그리고 주인공이 그 속에 들어 앉아 시종들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는 장면”⁸²⁾에서 무관을 확인 할 수 있다. 팔청리 고분의 무관(<그림28>)도 그 착장법이나 복식이 다른 고구려 고분들과 동일하다.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감신총의 묘주 역시 무관에 포를 입고 있다. 측면상이 없어 무관의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내관에 網狀의 관모를 덧쓴 모습이어서 무관으로 볼 수 있다. 감신총 묘주는 폐슬과 유사한 형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그림29>. 폐슬과 같은 장식은 5세기 후반의 쌍영총, 수산리 고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감신총을 시작으로 새로운 복식 요소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29> 감신총 묘주 묘사도
(조선유적유물도감 도판86)

의 경우 幘을 무관 안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쓰고 목둘레가 넓은 심의형 寬袖袍에 앞이 들린 신발을 신었다. 「女史箴圖」의 경우 幘이 없이 맨머리에 무관을 쓰고 역시 앞이 들린 신발을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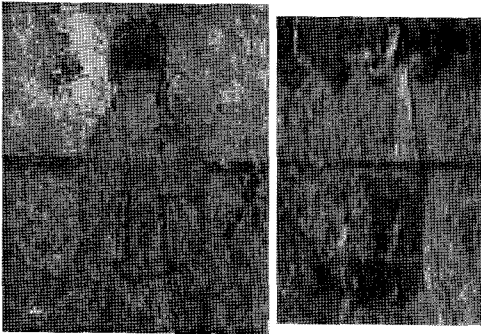
그러나 같은 시기 고구려 벽화의 무관은 오히려 漢代 무관의 착장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幘에 무관을 덧쓴 형태이다. 이들의 착장법이 東晉과는 다르지만 원대자묘 등 주변지역의 문

화와는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어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漢으로부터 사여 받은 복식을 입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견해⁸³⁾도 있으나 실제로 사여 받은 복식인가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묘주상이 좌상이어서 고습을 입고 그 위에 포를 입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고구려의 무관은 포와 함께 입었으며 그 착장법이 증원 왕조인 晉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무관은 5세기 중후반의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 이들은 宋(420~479), 齊(479~502)에 해당하며, 북위의 경우 386년부터 534년까지 존속되므로 안악3호분 등의 4세기 중반의 고분부터 수산리 고분 등의 5세기 후반 고분까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쌍영총의 경우, 부부좌상에 보이는 묘주가 검은 幘을 쓰고 망상의 관을 쓰고 있어 무관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쌍영총 묘주의 복식(<그림27>)은 안악3호분 묘주와 같은 화려한 붉은 포인데, 폐슬로 보이는 것을 하고 있다. 감신총, 수산리 고분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폐슬로 보이는 요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쌍영총 묘주의 복식 중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신발이다. 묘주가 앉아있는 평상 아래에는 부츠형태의 靴가 있어 묘주의 신발로 보인다.

靴는 履와는 달리 목이 길어 기마에 적합한 북방계 신발이다. 『隋書』에서는 “凡舄唯冕服及具服著之 履則諸服皆用 唯褶服以靴 靴胡履也 取便於事施於戎服”⁸⁴⁾이라 하여 먼북에는 舄을 신고 履는 모든 옷에 신었는데, 靴는 호리, 즉 호복의 신발로 편리함을 취하여 융복에 신었다고 하였다. 즉 靴는 胡服의 일종으로 고구려 복식에서는 무관에 화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洛神賦圖」와 「女史箴圖」 뿐 아니라 북위의 경우도 무관에 앞이 들린 신발을 신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앞이 들린 신발은 모두 履에 속하는 것으로 앞코의 모양에 따라 歧頭履, 笏頭履, 高齒履, 重臺履 등이 있고⁸⁵⁾, 포나 바지가 넓기



<그림30> 쌍영총 묘주상과 신발(조선유적유물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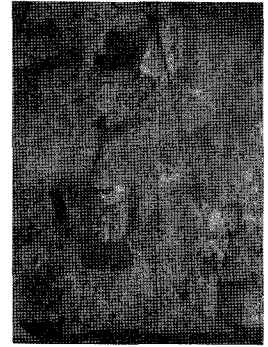
때문에 보행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중원 복식문화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어 쌍영총의 묘주가 화를 신고 있었음은 고구려가 중원 복식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방계 문화를 가진 북위의 경우, 武冠이나 帽, 고습을 즐겨 착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북방계 복식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지의 통이 넓어져 앞이 들린 신발을 신는 등 중원 문화와 융화를 이루는 모습도 보였다. 북위의 경우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쓰기도 하였고 중원 문화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원 복식의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선비 문화의 영향을 남조의 복식이 받은 것은 동진의 무관 형태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융합의 결과로 武冠에 부리가 넓은 바지를 입고 앞이 들린 신발을 신은 것이다.

靴와 履의 문화적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武冠과 靴는 모두 북방계 복식의 요소로 이들이 함께 쓰였다는 것은 고구려 무관 복식이 복식요소를 선택하여 조합된 것이라는 것, 또한 그것은 중국의 요소와 다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쌍영총 묘주뿐 아니라 수산리고분의 경우도 긴 포를 입었음에도 앞이 들린 신발은 보이지 않으며, 무관 역시 초기 고구려 무관의 착장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림 31>. 따라서 고구려 무관은 漢代의 무관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漢代 이후 중국-중원

왕조와 이민족 왕조를 불문하고의 변화와는 궤를 달리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평양지역 고구려 벽화의 무관은 幘을 쓰고 무관을 뒷부분에 걸쳐 쓰는 방법으로 착용하였다. 이는 4세기 중반의 고분부터 5세기 후반의 수산리고분에 이르기까



<그림31> 수산리고분 묘주(평양일대고구려유적, 도판188)

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유지된다. 무관과 함께 포를 입었으며 후반에 이르면서 패슬로 보이는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바지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무관에는 靴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중국의 무관은 선비모와 비슷하게 높고 불룩해진 형태였으며 넓은 바지에 포를 입거나 심의형 袍를 입었다. 신발은 넓어진 통에 맞게 앞이 들린 신발을 신었으며 고구려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가 남북조를 막론하고 중국의 변화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武冠은 집안지역의 오회분 4호묘에도 등장한다. 오회분에는 무관복식을 한 세 명의 인물이 보인다. 그러나 생활풍속도의 인물이라기보다는 희망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복식은 북위에서 부터 수, 당대로 이어지는 중국 무관의 복식을 보여 준다. 幘을 무관 안으로 완전히 넣은 것이며, 전반적인 실루엣과 앞이 들린 履를 신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중국의 무관 복식과 유사하며 평양지역의 무관과는 다르다. 오회분은 고구려 후기 고분으로 볼 수 있다.⁸⁶⁾ 고구려 벽화에 중국의 변형된 무관 복식이 등장한다는 것은 고구려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양지역의 무관이 오회분의 무관으로 변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무관 복식을 한 인물이 생활풍속계 벽화에서처럼 실제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32>에서처럼 연화화생의 인물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다음 생의 희망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 귀족인 이 인물들이 갑자기 다른 복식을 입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오회본에는 면류관을 쓴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복식 역시 실제로 착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면류관복은 제도습용 차원에서 고구려식으로 변용하여 불·도교적 승천사상에 입각한 승천 희망염원도에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⁸⁷⁾. 무관 복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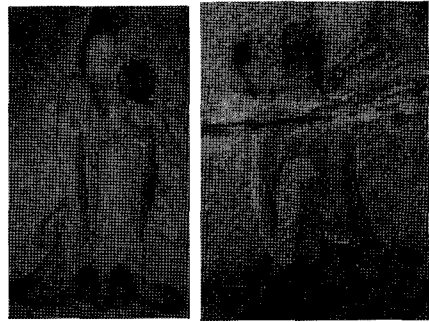
III. 결론

4세기 중반 안악3호분을 시작으로 5세기 후반까지 평양지역 묘주의 관모로 등장하는 관모는 고구려 복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들 관모가 무관과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중국의 武冠을 비교 검토하였다.

武冠은 胡服의 冠으로 조 무명왕이 호복을 채용하면서 함께 중원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초기 형태는 冠帽에 鷩尾나 貂尾, 金璫, 蟬 등을 붙인 惠文冠, 鷩冠이었으며 侍臣들이 주로 착용했다. 漢代에 와서는 武官들의 공식복장이 될 정도로 널리 이용되었다. 무관뿐 아니라 약대의 복식으로도 사용되었고, 모두 幘을 받쳐 쓰고 덧관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晉代에는 武官이나 侍臣의 관으로 널리 쓰였고, 1품~9품까지의 武官과 가마꾼까지 무관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晉代의 武冠은 위로 높아지고 뒷자락이 길어지는 형태적 변화를 겪었으며 받쳐 쓰던 幘이 아예 안으로 들어가거나, 幘없이 맨 머리에 쓰는 등 착용방법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북위의 무관은 선비모의 영향인지 위로는 높아지고 옆은 볼록한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여자시종들도 즐겨 썼던 것으로 보인다.

무관과 함께 입는 복식으로, 처음에는 호복



〈그림32〉 오회본 4호묘의 武冠 복식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도판27)

으로 채용한 것에 걸맞게 고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虎賁 등은 虎文單衣나 虎文袴를 입었다. 漢代의 무관 복식은 고습을 입고 그 위에 袍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화상석의 착장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晉代가 되면서는 변화가 생기는데, 官吏로 보이는 인물은 심의형 포에 앞이 들린 신발을 신어 전형적인 중원 복식을 보여 주었다. 가마꾼의 경우에는 고습에 포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역시 앞이 들린 신발을 신었다. 북위의 경우 고습에 입기도 하고 포를 입기도 하였지만 신발은 앞이 들린 신발을 신어 중원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무관은 漢代의 착장법과 유사해 幘을 쓰고 덧관 형태로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복식으로는 포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坐像이기 때문에 정확한 차림은 알 수 없다. 신발로는 靴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 시기 晉, 北魏에서 보이는 무관의 착용법, 무관의 형태, 함께 입는 복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양지역의 복식이 중국의 변화와 무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漢代의 무관과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무관 자체가 호복의 관모였음을 생각한다면, 무관의 복식은 중원 문화의 영향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袍를 입은 것만으로 중원 복식이라 할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무관 복식은 북방민족의 복식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북

방계 복식을 가진 고구려가 武冠을 중요한 복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그 변천에 있어 중국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나름의 방식대로 전개해 갔으며, 이는 같은 북방계 복식을 가진 鮮卑 등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구려 고유의 복식으로 보이는 집안 지역의 복식에서는 무관 복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무관 복식을 고구려의 고유 복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구려에 무관복식은 왜 등장하는 것인가? 무관 복식은 북방계 복식의 관모(武冠)와 복식(袴褶), 신발(靴)에 袍를 결합한 형태로 북방계 복식과 중원 복식이 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4세기 이후 5세기 말까지는 동아시아에 혼란이 계속되고, 서로가 스스로 중심임을 자처하던 시기였다. 잦은 전쟁은 필연적으로 각 문화 간의 교류와 융합을 가져오는 것이며 복식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원 복식문화에서는 잦은 전란 때문에 복식의 군사적·실용적인 필요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북방계 민족들은 스스로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필요로 했을 것이며, 寬大한 중원의 복식이 주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양쪽의 문화가 결합된 무관 복식은 이른바 胡漢 모두의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경우에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무관 복식에서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한다. 중원 복식의 성격이 강한 북위의 무관 복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 것 역시 고구려의 필요에 의해 무관 복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글에서는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고구려와 중국의 무관 복식을 비교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비교연구를 위해 필요한 관모와 복식의 구조, 역사적 배경, 각각의 사료 자체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고구려에서 무관복식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추후 이 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論語』憲問14, “子曰, …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 2) 『後漢書』輿服志에 기록되어 있는 永平 2년의 輿服을 보면 祭服으로 면관, 장관, 위모관 등이, 朝服으로는 통천관, 원유관, 진현관, 무관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은 관모의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관모의 형태나 유래 외에도 함께 입는 의복이나 패용물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어 관모의 이름이 복식 일습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안악3호분의 피장자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김정배 (1978). 안악3호분의 피장자 논쟁에 관하여. *고문화* 16 ; 공석구 (1989). 안악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 4) 『舊唐書』卷199, 列傳149, 東夷 高麗, “唯王五彩, 以白羅為冠”.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王服五采, 以白羅制冠”.
- 5) 왕릉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로는 북한의 전주농(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5(1959), pp.31~32), 손영중(고구려벽화무덤의 목서명과 피장자. *高句麗研究* 4. 1997, p.290), 천석근(안악 제3호 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박선희(*한국 고대 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2002, pp.251~258 ;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옷차림 문화. *高句麗研究* 17. 2003, pp.16~18)의 들 수 있다.
- 6) 안악3호분 묘주를 동수로, 그 관모를 武冠으로 보는 연구자로는 공석구, 정완진, 김희정, 양경애 등이 대표적이다. (공석구 (1998).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5집; 高句麗의 南進과 壁畵古墳.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pp.350-353 ; 정완진 (2003).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지

- 역적 특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정완진의 경우 처음에는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를 고구려왕의 ‘백라로 만든 관’으로 보았으나(高句麗 冠帽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정완진·이순원. 고구려 관모 연구. *服飾* 23. 1994) 후에 武冠으로 정정하였다); 김희정 (1997). 안악 3호분의 服飾 연구 1-남자 服飾. *服飾* 31; 양경애(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安岳3號墳 主人公의 服飾 考察. *論文集(인문사회·예체능편)*16. 1999; 安岳 3號墳 壁畫 服飾의 中國 服飾 要素. *아시아민족조형학보* 3. 2002).
- 7) 임명미는 『三國志』와 『後漢書』의 조복사여기사에 주목해 안악3호분과 덕흥리 고분 묘주 복식은 증원 왕조로부터 사여 받은 복식을 기본 복식 위에 입은 모습이라 하였다(中國正史소재 高句麗복식과 안악3호묘 덕흥리 벽화묘 복식과의 상관성 연구. 제 28차 고구려연구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03).
- 8) 공석구 (1998). Op. cit., pp.189~190.
- 9) 박선희 (2002). Op. cit., pp.254~258.
- 10) 정완진 (2001).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 *服飾* 51. 韓國服飾學會, p.105.
- 11) 대표적으로는 공석구, 정완진, 양경애의 논문이 있다(공석구 (1998). Op. cit.; 정완진 (2001). Op. cit.; 양경애 (2002). Op. cit.).
- 12) 박현정 (2001). 扶餘 定林寺地 도용 복원을 위한 籠冠 복식 연구. *服飾* 51. 韓國服飾學會.
- 13) 王國維 (1975). 胡服考. *觀堂集林* 卷8.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p.1069, “胡服之入中國, 始於趙武靈王…; 趙武靈王十九年, 初胡服. 其制, 冠則惠文…武官服之”
- 14) 『史記』卷43 趙世家 第30, “十九年春正月…召樓緩謀曰…今中山在我腹心, 北有燕, 東有胡, 西有林胡, 樓煩, 秦, 韓之邊, 而無彊兵之救, 是亡社稷, 奈何, 夫有高世之名, 必有遺俗之累. 吾欲胡服”
- 15) 호복의 증원수용에 대해 町田章은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초기로 편년되는 山東省의 대형묘에서 皮帶장식으로 보이는 金製, 銅製 장식이 나온 것을 들어 金具를 붙인 皮帶가 호복의 중요한 요소라면 무령왕 이전에 호복이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胡服東漸. *文化財論叢* II. 京都: 同朋舎出版. 1995, p.841). 殷代 석인상 등에서도 호복이 보이는 만큼 趙 武寧王의 호복채용 이전에도 호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증원복식의 전형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복이 증원에 본격적으로 채용된 것은 趙 武寧王代를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16) 陳茂同 (2005). *中國歷代衣冠服飾制*.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pp.80~81.
- 17) 혜문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왕국유는 “其插貂蟬者, 謂之趙惠文冠, 趙武靈王子何之諡, 武寧王服胡服, 惠文王亦服之. 後世失其傳, 因以惠文名之矣”라 하여 趙 武寧王의 아들인 惠文王이 무관을 썼으므로 惠文冠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았다(王國維 (1975). Op. cit., p.1070). 한편 『晉書』 여북지에는 “武冠…即古之惠文冠. 或曰趙惠文王所造, 因以為名. 亦云, 惠者螭也, 其冠文輕細如蟬翼, 故名惠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趙 惠文王이 만들어서 혜문관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惠文冠 즉 무관이 매미 날개 같이 얇은 감으로 만들어져 惠文(冠)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 18) 『後漢書』志30 輿服下, “武冠…謂之趙惠文冠”, 注 “又名駿驕冠” “武冠…加雙鸚尾, 豎左右, 爲鸚冠雲.”
- 19)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中國戲劇出版社, p.64.
- 20) 原田叔人 (1936).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pp.112~113.
- 21) 『宋書』卷118 志8 禮5 “虎賁中郎將, 羽林…

鷓尾, 絳紗縠單衣.”

- 22) 『南齊書』志9 輿服 “武冠…插雉尾於武冠上.”
- 23) 『隋書』卷11 志6 禮儀, “羽林, 武賁, 著鷓冠.”
- 24) 『戰國策』卷13 齊 6, 田單將攻狄, “齊 嬰兒謠曰 大冠若箕”
- 25) 『漢書』예문지의 “楚人, 居深山, 以鷓爲冠” 처럼 초나라 사람도 활관을 썼다는 것을 보면齊나楚와 같은 전국시대의 다른 나라들도 호복을 입었고, 그 시작은 趙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호복을 수용한 것은 趙 무령왕이었지만 전국시대에 호복을 입은 것은 趙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王國維 (1975). Op. cit., pp.1077~1078) 따라서 齊의 무관은 趙의 무관과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모양이 키와 같다는 내용이 고고학 자료의 무관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 26) 주석보 (1986). 中國古代服飾史. 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p.68.
- 27) 김소현 (2003). 호복, 실크로드의 복식. 서울: 민속원, pp.192~193.
- 28) 이는 무관의 후대 이름인 籠冠과도 상통하는 기록인데 漢代 이전의 武冠으로 보이는 관은 후대와 다르므로 초기 형태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9) 林巳奈夫 (1963). 漢代男子のかぶりもの. 史林 46(5), pp.106~108.
林巳奈夫 (1976).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pp.69~70.
- 30) 『漢書』卷63 武五子傳 第33, “衣短衣大袴, 冠惠文冠, 佩玉環.”
- 31) 上衣下裳이 연결된 深衣를 전형적인 복식으로 하는 중원에서 북방계 복식인 호복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복식을 袴褶이라 불렀다. 고습은 말 그대로 상의와 바지로 된 二部式 의복을 말한다. 중원 복식에도 바지는 있었으나 褌衣(속옷)로만 쓰였을 뿐 겉으로 드러내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서울: 민속원, p.101), 바지를 드러내어 입은 것은 호복, 즉 고습의 채용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 32) 『漢書』卷63 武五子傳 第33, “察故王衣服言語跪起, 清狂不惠.”
- 33) 『漢書』卷54 李廣傳 第24, “吾已胡服矣”
- 34) 『後漢書』卷1 光武帝紀 第1, “光武絳衣大冠”, 注 東觀記曰, “上時絳衣大冠, 將軍服也”
- 35) ‘武弁大冠’은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宋書』에서 武弁과 大冠을 구분하였으므로(주 52) 참조) 여기서도 각각의 이름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변과 대관 모두가 무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인 만큼 하나의 이름으로 보는 것과 각각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 모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36) 『後漢書』志30 輿服 下, “武冠, 一曰武弁大冠, 諸武官冠之” 注 “一雲古緇布冠之象. 或曰繁冠.”
- 37) 『後漢書』志30 輿服 下, “侍中, 中常侍加黃金璫, 附蟬為文, 貂尾為飾, 謂之趙惠文冠.”
- 38) 『後漢書』志30 輿服 下, “建武時, 匈奴內屬, 世祖賜南單于衣服, 以中常侍惠文冠”
- 39) 『後漢書』志30 輿服 下, “武冠…加雙鷓尾, 豎左右, 為鷓冠雲.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郎將, 羽林左右監皆冠鷓冠, 紗縠單衣. 虎賁將虎文袴, 白虎文劍佩刀. 虎賁武騎皆鷓冠, 虎文單衣.”
- 40) 甘肅省博物館 (1972). 武威磨咀子三座墓發掘簡報. 文物(12), pp.11~12, p.21.
- 41) 甘肅省博物館 (1972). 武威磨咀子三座墓發掘簡報. 文物(12), p.11.
- 42) 胡服이 중원에 수용되면서 처음에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노동복으로 입었던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 고습, 즉 바지의 착용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에 의해 구분될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磨咀子墓의 남녀가 주인과 하녀라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때, 여자가 袴褶을 입었다면, 남자도 비슷한 복식을 입

-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주인공의 경우 호복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고 복식도 襦나 衫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남자도 고습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여자와 같이 포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3) 中國畫像石全集編輯委員會 (2000). *中國畫像石全集1 山東畫像石*. 北京: 河南美術出版社, 62, pp.69~70.
- 44) 『晉書』志15 輿服, “幘者. 古賤人不冠者之服也. 漢元帝額有壯發, 始引幘服之. 王莽頂禿, 又加其屋也.”
- 45) 카를로 루도비코 락키 안티 편. 유준상 외 역 (1980). *국제관·세계의 대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서울: 정한출판사, p.20.
- 46) 『宋書』卷118 志8 禮5 “總章監鼓吹監司律司馬, 銅印, 墨綬. 朝服. 鼓吹監總章協律司馬, 武冠.”, “乘輿鼓吹, 黑幘武冠.”
- 47) 河北省文物研究所 編 (1990). *安平東漢壁畫墓*. 北京: 文物出版社.
- 48) 『晉書』志15 輿服, “左右侍臣 及諸將軍 武官通服之”
- 49) 『晉書』志15 輿服, “侍中, 常侍則加金璫. 附蟬為飾. 插以貂毛” 시중이나 중상시의 무관에 장식하는 것은 해문관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 것이지만, 명칭에 있어서는 “古之惠文冠” 이라 하여 해문관의 명칭은 무관이나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宋書』에도 이어져 무관을 “昔惠文冠” 이라 하고 있다.
- 50) 『宋書』卷118 志8 禮5, “晉武帝泰始三年, 詔太宰安平王孚服侍中之服, …四年, 又詔趙樂安, 燕王服散騎常侍之服.”
- 51) 『宋書』卷118 志8 禮5, “天子 元服 亦先加大冠”
- 52) 『宋書』卷118 志8 禮5, “武冠, 一名武弁, 一名大冠, 一名繁冠, 一名建冠, 一名籠冠, 即古之惠文冠”
- 53) グランド世界美術 第6卷 中國の美術II. 東京: 講談社. 1978, p.2.
- 54) 대영박물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thebritishmuseum.ac.uk/>).
- 55) 박현정은 선비에게는 冠대신 帽가 있었다고 하였다. 『通典』에서는 선비모인 돌기모가 ‘치마를 드리우고 있다’이라 하였는데(『通典』卷57 禮17 “突騎帽 如今胡帽 垂裙 覆帶蓋索髮之遺象也” 이는 帽에 자락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박현정·이순원 (1999). 복위 효문제의 복식 개혁에 관한 연구. 服飾 43. p.287). 帽의 뒷부분에 드림이 있는 것을 선비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면, 무관의 뒷부분이 늘어진 모양으로 변한 것도 선비족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6)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2000년 전 우리이웃*. 서울: 통천문화사, 도판8.
- 57) 원대자묘에 대한 연구 성과는 田立坤 논문에서 정리된 것을 참고(袁台子壁畫墓에 대한 재인식, 국제학술대회 요령지역의 고대문화. 2001, pp.6~35).
- 58) 원대자묘의 발굴 보고서에서도 목서 내용, 묘의 구조, 주변 墓와의 유사성 등을 들어 4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1984).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6), p.44).
- 59) 정완진은 이러한 유사성에 주목해 원대자묘의 복식을 분석한 바 있는데, 안악3호분의 피장자가 前燕 출신의 동수이고, 원대자묘 역시 선비계인 것을 들어 안악3호분에 선비계 문화가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Op. cit., 2001, p.107).
- 60) 甘肅省酒泉西沟魏晉墓彩繪磚 (2000). 重慶: 重慶出版社, p.6.
- 61) 朴雅林 (2003). 高句麗 壁畫와 甘肅省 魏晉 時期(敦煌 包含)壁畫 比較 研究. *高句麗研究* 16, p.141.
- 62) 『宋書』卷118 志8 禮5, “侍中, 散騎常侍及中常侍, 給五時朝服, 武冠. 貂蟬, 侍中左, 常

- 侍右.”
- 63) 『宋書』卷118 志8 禮5, “虎賁中郎將, 羽林監, 銅印, 墨綬. 給四時朝服, 武冠. 其在陸列及備鹵簿, 鷓尾, 絳紗黻單衣.”
- 64) 『宋書』卷118 志8 禮5, “其雜服, 有青赤黃白緇黑色介幘, 五色紗裙, 五梁進賢冠, 遠遊冠, 平上幘, 武冠.”
- 65) 『宋書』卷118 志8 禮5, “給事中, 黃門侍郎, 散騎侍郎, 太子中庶子, 庶子, 給五時朝服, 武冠.”
- 66) 『宋書』卷118 志8 禮5, “總章監鼓吹監司律司馬, 銅印, 墨綬. 朝服. 鼓吹監總章協律司馬, 武冠.”, “乘輿鼓吹, 黑幘武冠.”
- 67) 『南齊書』卷17 志9 輿服, “余軍校武職, 黃門, 散騎, 太子中庶子, 二率, 朝散, 都尉, 皆冠之”
- 68) 『南齊書』卷17 志9 輿服, “侍臣加貂蟬”
- 69) 『南齊書』卷17 志9 輿服, “唯武騎虎賁服文衣, 插雉尾於武冠上”
- 70) 박현정 (2000). 中國 異民族 王朝의 服飾政策 比較-北魏와 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63~66.
- 71) 『南齊書』卷17 志9 輿服, “主兵官及侍臣, 通著武弁. 侍臣加貂蟬.”
- 72) 『南齊書』卷17 志9 輿服, “羽林, 武賁, 著鷓冠”
- 73) 『隋書』卷11 志6 禮儀, “乘輿…季秋講武, 出征告廟, 冠武弁, 黃金附蟬, 左貂. 楊類宜社, 武弁, 硃衣. 入溫, 涼室, 冠武弁, 右貂附蟬, 絳紗服. 賞祖罰社, 則武弁, 左貂附蟬.”
- 74) 고구려 고분의 편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전호태의 편년안(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pp.417~419)을 따르기로 한다. 절대연대가 있는 고분을 제외하고는 편년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크게 구분하여 그 경향을 살피는 것에 주력하려고 한다. 아울러 고분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같은 책 pp.384~401.를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 75) 中國大百科全書智慧藏 (<http://203.72.198.245/web/Content.asp?ID=49754&Query=6>)
- 76) 보스턴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fa.org/>)
- 77) 이에 대해 공석구는 안악3호분의 묘주인 동수 등 유이민들이 중원의 문화를 누렸기 때문으로 보았고(안악3호분 주인공의 관모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5. 1998), 임명미는 漢에서 복식과 함께 고취악대를 사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Op. cit., 2003).
- 78) 門前誠一 (2005). 東アジアの壁畫墓に描かれた墓主像の基礎的考察-魏晉南北朝における高句麗古墳壁畫の相對的位置-. *鷹陵史學* 31.
- 79) 고구려연구재단 (2005).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朝鮮書報出版部 (1985). *高句麗 古墳壁畫*. 東京: 朝鮮書報社.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 80) 박현정 (1997).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생활풍속도의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p.60~63.
- 81) 주영헌 (1963). 약수리벽화무덤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pp.141~142.
- 82) 전주농 (1963). 대동군팔청리벽화무덤. *고고학자료집* 3, p.167.
- 83) 임명미 (2003), Op. cit.
- 84) 『隋書』卷11 志7 禮儀7.
- 85) 沈從文 (2005). Op. cit., pp.214~215.
- 86) 조선일보사 (1993).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p.25 연표의 편년에 의한 것이다.
- 87) 임명미 (2005). 중국 남북조시대 고구려 국왕 사여복식과 고구려 면류관에 관한 연구. *服飾* 55.